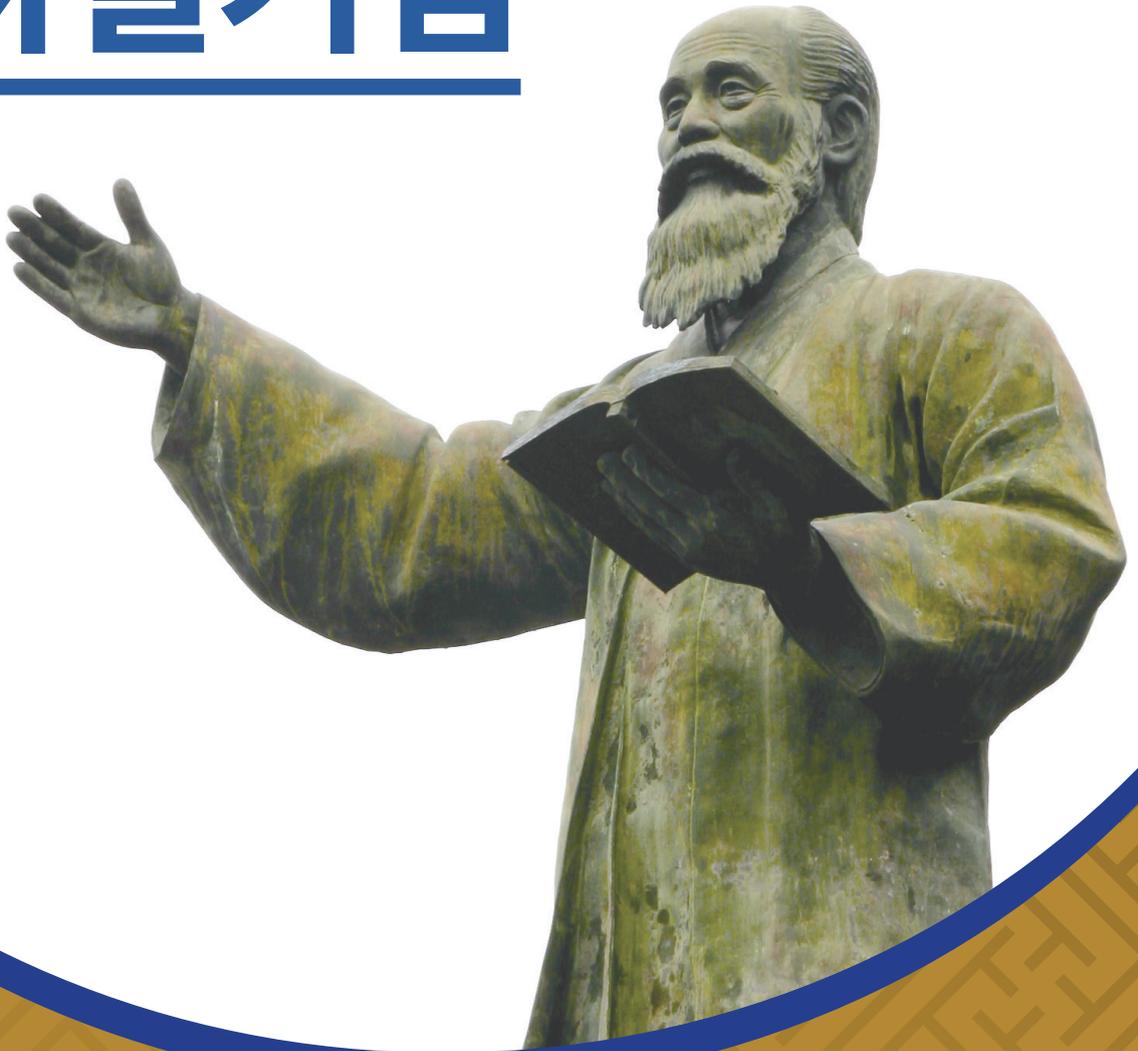


제154주년

지일기념



포덕 158(2017)년 8월 14일

대도중흥 비전 21

동덕들이여 일어납시다!
다함께 나아갑시다!
대도중흥의 길로!

포덕 역량의 구축 !

- 하나. 중앙총부 혁신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교헌을 개정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신앙심을 강화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전문교역자 양성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연구기관 육성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지방교구 활성화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수도원을 활성화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포덕 환경의 확충 !

- 하나. 도서관을 활용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박물관을 설립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홍보전시관 설립으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성지를 성역화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여성·청년포덕으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인터넷 신문 발행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방송국을 개국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포덕 광제의 실천 !

- 하나. 현도정신 선양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복지사업 육성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삼일정신을 현창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민족통일 앞장서서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해외포덕 개척하여 대도중흥 합시다!
- 하나. 인내천사상으로 대도중흥 합시다!

제154주년

지일기념





식 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수심정기)
1. 천덕송 합창(기념송 1절-3절)
1. 기 념 사
1. 축 사
1. 천덕송 합창(지일기념가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 지일기념 축하공연

1. 식전공연 - 천도교연합합창단
장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 일시 : 8월 14일 기념식전(10:30~11:00)
2. 식후공연 - 역사음악합창단
장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 일시 : 8월 14일 기념식후(12:00~12:30)

● 사인여천나눔축제

- 기념품을 나누며 다함께 축하하는 나눔행사
-



기념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월신사께서 수운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으시고 천도교 2세 교조가 되신지 154주년이 되는 지일기념일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수운대신사께서 새로운 도를 펼치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경주 용담으로 찾아가서 입도하신 후에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수도연성에 매진하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대신사의 제자들 중에는 학식으로나 언변으로는 해월신사보다 우수한 제자들이 적지 않았으나, 대신사께서는 노고근면하며 성지우성하는 해월신사의 성품과 도량, 근기와 혜안을 높이 평가하시고 해월신사께 도통을 전수하셨습니다.

해월신사께서 이어받은 무극대도는 당시는 관의 지목대상이었으므로 해월신사의 포덕일생은 간난신고와 도산검수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월신사를 몽매에도 잊지 못하는 것은 스승님의 고난의 일생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민중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가 한울사람이 되는 길과 한울세상으로 가는 길을 세세히 일러 주신 스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해월신사의 생애는 일찍이 대신사께서 밀지로 남겨주신 “나는 천명을 순히 받고자 하니, 너는 높이 날고 멀리 뛰어라(吾順受天命 汝高飛遠走)”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며 한울님과 스승님의 명교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었던 힘은 대신사로부터 물려받은 수심정기(守心正氣)의 도법을 염념불망하시며 실천하신 덕분이었습니다.

해월신사 승통 제154주년 지일기념일을 맞이하여, 한울님과 스승님들의 거룩하신 가르침과 수도-행도-순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심을 더욱 돈독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천명사훈을 실천궁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몸소 한울세상, 한울사람, 한울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스스로 천명사훈의 전형과 모범이 되는 것임을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출발하되, 세상과 더불어 해야 함도 분명한 사실

입니다. 갑오년 동학혁명 이후 세상 사람들의 원망과 비방이 높아질 때 해월신사께서는 이는 천명으로 된 일이니 앞으로 도리어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 하시면서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어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고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개혁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해월신사의 말씀 중에서도 이 시대 상황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은 양천주(養天主)의 가르침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한울을 양할 줄 아는 이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안다.”고 하시면서, 종자를 심어야만 곡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울을 양하여야만 한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한울사람으로서의 삶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월신사께서 말씀하신 양천주 가르침의 참뜻을 생각할 때, 그 출발점은 수도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양천주하는 수도연성은 밖으로의 양천주라고 할 “포덕”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성공(成功)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자가 내 마음에 있음을 시

천주라 하고 이를 땅에 심어 양하는 것이 양천주라 한다면, 그 열매를 세상 사람과 더불어 맛있게 먹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포덕입니다. 포덕은 천도교인의 제1사명입니다.

일찍이 해월신사께서는 “처남매부지간의 포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되, 용시용활의 이치를 더하여 보면 창도시대의 포덕과 은도시대의 포덕, 현도시대의 포덕은 각각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덕 158년의 우리가 “대도중흥 비전21”과 “포덕 2500”이라는 결의를 앞세우는 것은 우리 시대의 포덕방책을 찾아내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 성패는 우리의 성심수련을 통한 양천주의 실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년 앞으로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을 밖으로는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선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교단 차원에서는 고난의 100년사를 딛고 성운의 100년사를 시작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날로 높아지는 동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인내천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포덕의 기운이 내외(內外)에서 조응하여, 새로운 포덕의 기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눈앞에 전개될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시대의 포덕, 그리고 새로운 문명과 조응

하는 포덕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일시대의 포덕은 이제 곧 우리 앞에 현실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중앙총부에서는 남북 간의 빗장이 풀리면 가장 먼저 북측의 동덕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민족의 통일을 우리 천도교인들이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것이 많은 분들이 우리 천도교에 기대하는 통일시대의 선구적 역할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북측 천도교 동덕여러분들도 우리의 정성에 호응하시어 민족의 통일과 포덕광제의 새 시대를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교령과 관계자들이 함께 미국 서부지역을 순방하였습니다. 미국 서부지역을 순방하게 된 것은 한인 밀집지인 LA를 중심으로 미국에 동학 천도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원대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도중흥 비전 21과 포덕 2500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해외 포덕은 반드시 개척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LA지역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동학천도교 공개강의가 진행되어 많은 언론매체와 교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천도

교LA교구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만간 성미수납이 완료 되면, 일본의 신호교구에 이어 두 번째 해외교구가 설립됩니다. 일찍이 해월신사께서 “일후에는 사람들이 다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달라고 할 것이니라. 이때를 당하여 포덕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하면 모든 나라가 자연히 천국이 되리라.”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올해 지일기념일까지는 양천주를 위한 씨앗을 찾고 보존하여 그 씨앗을 뿌릴 토지를 갈고 비옥하게 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씨앗을 뿌리고 잘 길러서 거두어들여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즈음하여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오만 년 무극대도를 위한 귀중한 한 걸음을 더 한다는 충심(衷心)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해월신사께서 일찍이 우리 도의 이름과 주의를 세계에 퍼 날리고, 서울 장안에 크게 교당을 세우고, 주문 외우는 소리가 한울에 사무치는 현도의 때를 예견하시고 “이 뒤에 또 갑오년과 비슷한 일이 있으리니, 외국 병마가 우리 강토 안에 몰려들어 싸우고 빼앗고 하리라.

이때를 당하여 잘 처변하면 현도가 쉬우나, 만일 잘 처변치 못하면 도리어 근심을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병마란 사람 죽이는 신형의 침단 무기이기도 하며,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괴질이기도 하며, 서양으로부터 비롯되어 사람의 삶을 옥죄는 물질문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위협이면서 또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월신사의 말씀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 후학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요, 당부의 말씀이며, 바라마지 않으시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순도 직전에 “나 죽은 후 10년 안에 장안에 주문소리가 진동하리라” 하신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오늘, 해월신사 승통 제154주년이 되는 천도교단 안팎에서는 이처럼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며, 새로운 결단과 가일층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월신사의 거룩한 포덕광제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대도 중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으로 굳건히 맹세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 한결같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새 하

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새롭게 열리는 지상천국이 펼쳐질 것이며,
해월신사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날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면
서 오늘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8(2017)년 8월 14일

천도교 교령 이정희 심고



『해월신사법설』

守心正氣(수심정기)

人能清其心源 淨其氣海 萬塵不污 慾念不生天地精神總歸一身之中 心無清明其人愚昧 心無塵埃其人賢哲

燈得膏油以後光焰明明 鏡得水銀以後照物昭昭 器得火炎熔煉以後 體質堅堅 人得心神教訓以後 意思靈靈矣

身體心靈之舍也 心靈身體之主也 心靈之有 爲一身之安靜也 慾念之有 爲一身之擾亂也

心靈惟天也 高而無上 大而無極 神神靈靈 浩浩蕩蕩 臨事明知 對物恭之 思之則 天理得焉 不思之則 不得衆理矣 心靈思之 六官不思之 以心靈明其心靈 玄妙之理 無窮之造化可得而用之 用之則 滿乎宇宙之間 廢之則藏乎一粒之中矣

鏡不蔽垢則明 衡不加物則平 珠不渾淤則光矣 人之性靈也如天之日月
日中則萬國自明 月中則千江自照 性中則百體自安 靈中則萬事自神矣

廣廈千間 主人不能保護 其棟樑風雨倒壞 可不懼哉 我心不敬天地不敬
我心不安天地不安 我心不敬不安 天地父母長時不順也 此無異於不孝
之事 逆其天地父母之志 不孝莫大於此也 戒之慎之

猛虎在前 長劍臨頭 霹靂降下 不懼 唯獨無言無聲之天 常畏懼矣 人皆
由人之禍福當場易見 無形無言天之禍福難見矣

世人皆謂蜀道險難矣 蜀道無險人心尤險

「守心正氣」四字 更補天地隕絕之氣 經曰「仁義禮智先聖之所教 守心正
氣惟我之更定」若非守心正氣則 仁義禮智之道 難以實踐也 吾着睡之前
曷敢忘水雲大先生主 訓教也 洞洞燭燭 無晝無夜

諸君 能知守心正氣乎 能知守心正氣之法 入聖何難 守心正氣萬難中第
一難也 雖昏寢之時 能知他人之出入 能聽他人之言笑 可謂守心正氣也
守心正氣之法 孝悌溫恭 保護此心如保赤子 寂寂無忿起之心 惺惺無昏

昧之心 可也

心不喜樂 天不感應 心常喜樂 天常感應 我心我敬 天亦悅樂 守心正氣
是近天地我心也 眞心 天必好之 天必樂之

사람이 능히 그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고 그 기운바다를 깨끗이 하면 만진
이 더럽히지 않고, 욕념이 생기지 아니하면 천지의 정신이 전부 한 몸안에
돌아오는 것이니라. 마음이 맑고 밝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우매하고, 마음에
티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현철하느니라.

등불은 기름을 부은 뒤에라야 불빛이 환히 밝고, 거울은 수은을 칠한 뒤에
라야 물건이 분명히 비치고, 그릇은 불에 녹아 단련된 뒤에라야 체질이 굳
고 좋으며, 사람은 마음에 한울님의 가르침을 얻은 뒤에라야 뜻과 생각이
신령한 것이니라.

몸은 심령의 집이요 심령은 몸의 주인이니, 심령의 있음은 일신의 안정이
되는 것이요, 욕념의 있음은 일신의 요란이 되는 것이니라.

심령은 오직 한울이니, 높아서 위가 없고 커서 끝이 없으며, 신령하고 호탕

하며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함에 공손하니라. 생각을 하면 한울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않으면 많은 이치를 얻지 못할 것이니, 심령이 생각하는 것이요, 육관(눈·귀·코·혀·몸·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라.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어 쓸 수 있으니, 쓰면 우주 사이에 차고 폐하면 한 쌀알 가운데도 감추어 지느니라.

거울이 티끌에 가리우지 않으면 밝고, 저울에 물건을 더하지 않으면 평하고, 구슬이 진흙에 섞이지 않으면 빛나느니라. 사람의 성령은 한울의 일월과 같으니, 해가 중천에 이르면 만국이 자연히 밝고, 달이 중천에 이르면 천강이 자연히 빛나고, 성품이 중심에 이르면 백체가 자연히 편안하고, 영기가 중심에 이르면 만사가 자연히 신통한 것이니라.

넓고 큰 집이 천간이라도 주인이 잘 보호치 않으면 그 기둥과 들보가 비바람에 무너지나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은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요, 내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것은 천지가 편안치 않은 것이니라. 내 마음을 공경치 아니하고 내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천지 부모에게 오래도록 순종치 않는 것이니, 이는 불효한 일과 다름이 없느니라. 천지부모의 뜻을 거슬리는 것은 불효가 이에서 더 큰 것이 없으니 경계

하고 삼가하라.

사나운 범이 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리어도 무섭지 아니하나, 오직 말 없고 소리 없는 한울이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니라. 사람이 다 사람으로 연유하여 생기는 화복은 당장에 보기 쉬우나,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한울의 화복은 보기 어려운 것이니라.

세상 사람이 다 축도가 험난하다고 이르나, 축도가 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길이 더욱 험한 것이니라.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라」하셨으니, 만일 수심정기가 아니면 인의예지의 도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내 눈을 붙이기 전에 어찌 감히 수운대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잊으리오. 삼가서 조심하기를 밤낮이 없게 하느니라.

그대들은 수심정기를 아는가. 능히 수심정기하는 법을 알면 성인 되기가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수심정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니라. 비록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을 알고, 능히 다른 사

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가히 수심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수심정기 하는 법은 효·제·온·공이니 이 마음 보호하기를 갓난 아이 보호하는 것같이 하며,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함이 옳으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한울이 감응치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이 언제나 감응하느니라.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한울이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수심정기는 바로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이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이 반드시 즐거워 하느니라.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희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짜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짜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29장 지일기념가

1. 장 -- 하 도다 오 늘 은
 2. 장 -- 하 도다 오 늘 은
 3. 장 -- 하 도다 오 늘 은

1. 팔 월 십 사 일
 2. 팔 월 십 사 일
 3. 팔 월 십 사 일

1. 사 - 해 운 - 중 밝 은 달 이
 2. 해 - 월 신 - 사 승 통 한 날
 3. 해 - 월 신 - 사 무 극 대 도

1. 솟 아 을 - 라 서
 2. 도 통 이 어 받 어
 3. 이 어 반 - 은 날

1. 어 든 세 - 상 명 량 하 게
 2. 이 세 교 - 조 되 - 셔 서
 3. 어 든 세 - 상 밝 아 온 날

1. 비 취 주 - 신 날 -
 2. 세 상 건 지 신 날 -
 3. 창 생 살 아 난 날 -

1.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2.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3.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1. 지 일 기 - 념 일 -
 2. 지 일 기 - 념 일 -
 3. 지 일 기 - 념 일 -

해월신사의 생애(약력)

- 포덕전 33년(1827)**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탄생하시다.
본관은 경주 최씨(慶州 崔氏), 초명은 경상(慶翔), 포덕 16년에 시형(時亨)으로 고치시다.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시다.
- 포덕 2년(1861)** 35세에 경주 용담에서 동학에 입도하시다.
- 포덕 4년(1863)** 8월 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시다.
- 포덕 6년(1865)** 검곡에서 귀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첫 법설을 한 이후, 「양천주(養天主)」, 「대인접물(待人接物)」,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 「내수도문」, 「내직」, 「임사실천(臨事實踐) 10개조」, 「천지부모」 등의 많은 법설을 하시다.
- 포덕7년(1866)**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 용화동 일대에 많은 동학교도들을 모아 함께 생활하며, 동학교단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시다.
- 포덕 12년(1871)** 이필제 작변이후, 영월 직동 박용걸의 집에 은거하면서 12월에 「대인접물(待人接物)」에 대한 설법을 하시다.
- 포덕 21년(1880)** 6월,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목판으로 간행하시다.
- 포덕 22년(1881)** 6월, 단양 남면 샘골에서 『용담유사』를 목판으로 간행하시다. 이후 목천, 경주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목판으로 간행하시다.
- 포덕 25년(1884)** 10월, 오늘의 삼권분립과 유사한 조직체인 6임제(六任制)를 정하시다.
- 포덕 33년(1892)** 10월에 공주에서, 11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34년(1893)** 2월,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하고, 3월, 보은 장내리에서 3만명이 모여 대대적으로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 운동을 하시다.
- 포덕 35년(1894)** 3월 백산에서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 동학혁명의 깃발이 올라가고
5월, 청일양군(淸日兩軍)이 상륙하여 주권을 침해하자
9월 18일, 총기포령을 내려 모든 동학군이 일병과 연합한 관군에 항쟁하였으나 일본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혁명이 좌절되다.
- 포덕 38년(1897)** 이천 앵산동에 은거하며 4월 5일, 「향아설위」의 의식을 행하시다.
12월 24일, 도통을 의암성사에게 전수하시다.
- 포덕 39년(1898)** 인제, 여주 등지로 피신을 하다가,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헌에게 체포되어 6월 2일, 한성(경성)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교수형으로 순도하시다.

대도중흥 비전21 실천강령

우리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포덕역량의 구축

- 하나. 수심정기 생활을 합시다!
- 하나. 주문을 항상 외웁시다!
- 하나. 모든 의식에 청수를 봉전합시다!
- 하나. 시일식에 빠지지 맙시다!
- 하나. 성미를 제 때에 납부합시다!
- 하나. 기도와 수련을 생활화 합시다!
- 하나. 성경신을 지극히 실천합시다!

포덕환경의 확충

- 하나. 아내와 남편 간에 화목하게 지냅시다!
- 하나. 부모와 자녀 간에 친하게 지냅시다!
- 하나. 고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껴줍시다!
- 하나. 가족 간에 서로 경어를 사용합시다!
- 하나. 어린이를 행복하게 합시다!
- 하나. 매사에 감사함과 희망을 가집시다!
- 하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포덕광제의 실천

- 하나. 사인여천을 실천합시다!
- 하나. 경물사상을 실천합시다!
- 하나. 봉사활동에 앞장섭시다!
- 하나.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 하나. 웃는 얼굴로 생활합시다!
- 하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 하나. 이웃에게 모범이 됩시다!

1인 1포
10년
300만
만들

교구는 이렇게 변화합시다

- 하나. 청소년 포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합시다!
- 하나. 교구 일은 젊은이를 앞세웁시다!
- 하나. 어린이를 즐겁게하는 교구로 만들시다!
- 하나. 정기적인 교구합동 강도회를 개최합시다!
- 하나. 지역 합동 시일을 정례화 합시다!
- 하나. 휴면 교인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 하나. 따뜻한 정이 넘치는 교구를 만들시다!
- 하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구가 됩시다!
- 하나. 신입교인에게 정성을 다합시다!
- 하나. 교인들 경조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 하나. 청년회, 여성회 활동을 활성화합시다!

총부는 이렇게 변화합시다

- 하나. 항상 교구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 하나. 전 기관이 포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시다!
- 하나. 설교자의 자질을 향상시킵시다!
- 하나. 신입교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합시다!
- 하나. 수도원 현대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 하나. 교구와 소통합시다!
- 하나. 포덕대회를 개최하여 교구를 지원합시다!
- 하나. 우수 교구 및 모범교인을 포상합시다!
- 하나. 포덕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합시다!
- 하나. 해외포덕사를 양성합시다!

덕으로
안에
교단을
시다!



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88)
www.chondogyo.or.kr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